

正連訓法師奉震馮璋等宜諭諭旨請移居迦智山寺遂飛金錫遷入山門金彥卿陳弟子之禮爲入室之資減俸出財市鐵二千五百斤鑄虛舍那佛一軀以藏禪師所居梵宇教下望水里南等宅共出金一百六十分租二千斛助充裝飾功德寺隸宣教省懿宗咸通辛巳歲以十方施資廣其禪宇慶畢功日禪師莅焉虹之與蜺貫徹堂內分輝耀室溼彩燭人此乃堅牢告梓姿迦表瑞也僖宗廣明元年孟夏四月二十二日雷電一山自西至戌二十三日子夜上方地震及天曉右脇即終弟子八百人追慕崇號聲動溪谷葬於玉山壘塔安厝中和三年春門人義車等募集行狀遠詣王門請建碑銘主上慕眞空之理嘉尊師之心教所可定諡曰普照塔號曰彰聖寺額曰寶林蓋寶林者因元表大德禪師所編舊額而表其當日創始之由也諡號塔號寺號之稠疊贈遺者特加恩厚慶其禪宗禮也大抵山名寺號既同於西域中國而前之元表大師次之道儼大師後之體澄大師三大師俱是禪門大覺祖師而濟生靈於沙界宜聖化於三韓得如來心於萬里之外傳如來道於萬歲之下使是山玉蘊山輝珠藏水媚林壑賴以爲重法教垂於無窮矣居是寺者可不昂哉寺北有元表大師草創之地是乃建寺古蹟也仍稱古迦智並記此以開後人紹述之資云爾

皇明天順年中記

註記 黃 壽 永
이 事蹟記 一卷은 今春 歸國한 李基白 教授가 美國 하바드 大學 燕京圖書館에 서 注目하여 影印齎來한 것이다.

黑書寫本으로서 九枚 十八面인 바 各面은 八行 每行 十六字 楷書로서 長 三三 cm 이다. 卷末에 「皇明天順年中記」라 있어 朝鮮朝 世祖 三年—九年 西紀 一四五七—一四六四)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國內에 이와 같이 오랜 寺蹟記의 傳來가 드물고 또 新羅 禪門 九山의 하나인 迦智山 寶林寺의 것이므로 李教授의 厚意로서 이곳에 그 全文을 신는 바이다. 同寺 事蹟이 따로 傳함이 없는 듯함으로 이 冊은 아마도 寶林寺의 最古唯一의 文籍이 될 것이다. 寶林寺는 六·二五 動亂에 全燒되 었으나 아직多數의 造形作品을 잔적하고 있는 羅代名刹인 바 이같은 事蹟記의 發見은 그에 對한 새로운 注目の 契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卷頭에 보이는 創建緣起와 元表大德 仙娥와 池龍傳說 伽藍配置의 記事 등은 貴重하다 하겠으며 後半은 同寺에 傳하는 普照禪師 彰聖塔碑文에서의 拔萃이다. 國內에서 볼 수 없는 最古의 事蹟記를 찾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李教授의 配慮에 感謝하는 바이다. 寶林寺는 全南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에 있어 上記 普照塔碑 以外에 在銘鐵佛坐像, 三層石塔 二基, 石燈, 東西浮屠 等이 國寶 또는 寶物로 指定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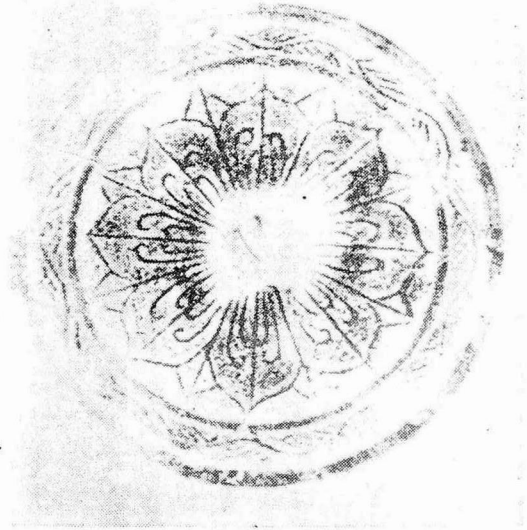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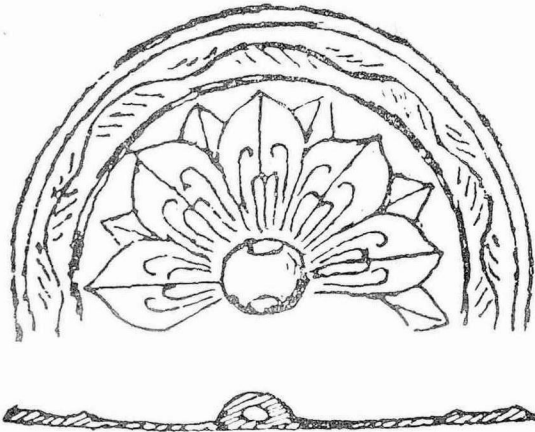
— 第八卷 第五號 通卷八十二號 —

傳 慶州出土의 蓮華紋鏡

梅 原 末 治

이 鏡은 故 小倉武之助 氏가 八·一五 前에 蒐集했던 많은 韓土文物의 하나로서 慶州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해졌을 뿐 그 出自은 明確하지 않다. 그러나 南韓地域에서는 高麗以前에 屬하는 古鏡의 出土例가 지금까지 매우 적다는 點, 그리고 鏡 그 자체가 六朝代의 鏡으로 認定된다는 點에서 關係되는 資料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에 그 拓影을 실어서 紹介해 둔다.

이 鏡은 徑 9 cm 변두리 두께 2 mm 間량의 얇은 鑄銅品이며 그 面은 약 外區의 部分이 조금 두꺼우며 中央



에는 完好한 半圓形에 가까운 鈕를 갖추고 있는 點 등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代 鏡體와 같은 물건이다. 그 全面은 모두 灰綠色을 보이는 所謂 水中古의 色澤이어서 원래 濕地에 埋藏되어 있었음을 그 自體가 보여 주고 있다.

이 鏡의 背紋은 鈕를 中房으로 삼아서 넓은 內區에 크게 蓮葉紋을 突線으로 表現하고 一段 높은 곳, 所謂 外區에 波狀草紋을 配한 것으로서 插入된 拓影과 같은 것이며 이것이 鏡文으로서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즉 主文을 이루고 있는 蓮華紋은 先端이 卽 죽한 八葉의 瓣脈이 있는 것으로서 瓣間에는 이 卽죽한 연판 끝을 鉸친 式인데 그

것은 高句麗나 百濟의 壁畫에 그려진 蓮華와 相似되어 있으며 또 古新羅의 一金銅幣을 장식한 蓮華紋과 같은 型에 屬하는 것이다. 그리고 外區의 波狀草紋도 古漢鏡에 있어서의 外區紋인 所謂 流雲紋이나 草渦紋의 系統을 받은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點으로써 이 鏡이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後半期의 銅鏡이라는 것을 그 自體로써 인정할 수 있다.

右 鏡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은 中國에 있어서의 六朝後半의 古鏡遺存例는 現在 더욱 遺品이 희귀하다. 따라서 이것이 鑄造된 곳에 對해서 鏡을 出土地域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것을 後漢代로부터 鏡의 仿製가 盛行했던 日本에 있어서의 仿製鏡의 實相——그 六朝中期의 遺品은 慶州의 金鈴塚에서 出土되었다——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當時의 中國으로부터 온 舶載鏡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한 點으로 歷史의 興味를 한층 도꾸어 준다.

成化三年銘 司饗院銅印

崔 淳 雨

一
司饗院은 當初 司饗房이란 이름으로 李太祖 元년에 高麗의 舊制를 이어 創設했던 宮中官署의 하나였다. 經國大典에 「司饗院掌供御膳及 闕內供饋等事」云이라 밝힌 바와같이 이 官廳은 王의 御膳을 비롯하여 宮中의 厨房을 맡은 機關으로서 그 責任의 重大性에 비추어 그 長인 都提調는 王子 또는 大臣級으로 補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 司饗院은 御膳을 비롯한 御厨百事に 必要한 食器類를 自體가 調達해야 되었으며 따라서 國初以來로 鑄造官을 두어서 御用沙器그릇을 監造하고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大典會通 六典條例에도 밝혀져 있지만 이러한 使命으로 因하여 結果적으로 이 司饗院은 李朝陶磁器發達의 溫床으로서 李朝陶藝界의 中樞의 役割을 다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國內의 地方官窯는 말할 것도 없고 民窯에 이르기까지 그 器皿制式이나 窯技指導의 總本山格인 구실을 다해왔었